

특별선교주일

세계평화주일

설교 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 평화주일

설교 자료



본 설교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세계평화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11~13 및 마태복음 28:16~20을 기초로 제작된 본 자료를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우리가 복음서 본문에서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며 종종 대위임(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립니다. 열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와 산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천상계와 부서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계속 전파할 것과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또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위임(Great Commission)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동역(co-mission)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명 선언문도 오늘 말씀과 닮아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삼는 데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식민 지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부정의들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제자도”라는 말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과 혼동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가르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하라.”

-마태복음 28:20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종종 대위임(Great Commission)으로 불리지만, 이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평화주일 설교 자료

것은 후대의 교회가 붙인 것이지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앞 부분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것으로 부르셨던 대계명(Great Commandment)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40).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11~13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정의는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위해 일하고, 서로를 격려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지 우리의 마음이나 관계 가운데 누리는 평화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지역과 더 나아가 온 세계에 평화와 정의가 깃들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의 없이 평화도 없다(No justice, no peace)” 정의를 부르짖는 집회에서 종종 들려오는 구호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 결의 문집은 아래와 같이 서술합니다. “살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부정적 평화나 일차원적 평화가 아닙니다. 살롬은 전쟁이 없는 것 훨씬 이

상을 의미합니다. 살롬은 긍정적 평화로 인간의 모든 관계 안에 깃든 조화, 온전함, 건강, 웰빙을 의미합니다. 살롬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상태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의가 꼭 필요합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세례 서약 또한 이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능력으로 남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불의에 대항하겠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능력으로 남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불의에 대항하겠습니다.”

— 연합감리교회 세례 서약

이들을 위한 정의가 이룩될 때 비로소 가능해 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대위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장벽을 쌓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정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 또한 포함됩니다.



세계평화주일 설교 자료

예수님과 동역(co-mission)하는 기회는 단지 2,000년 전 그분의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과 제게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는지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본을 보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와 정의를 구축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나 낯선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실천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눕니다.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

역 사회를 섬기면서 (연회 내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역의 사역들을 애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회복으로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신앙 여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가 회복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대위임(Great Commission)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웃들과 동역(co-mission)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들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또 평화와 정의가 회복되고 있는 곳을 찾아 그분을 높여 드리십시오. 사실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경 이미지 문구: “정의 없이 평화도 없다”

NO

JUSTICE

NO

PEACE

